

마샬의 經濟發展論*

邊 衡 尹**

<目 次>	
I.	序 言
II.	Robbins의 解釋
III.	Youngson, O'Brien의 解釋
IV.	Whitaker의 解釋
V.	結 言

I. 序 言

흔히 A. Marshall에는 經濟發展論 내지 經濟成長論이 存在하지 않는 것처럼 말해진다.⁽¹⁾ 그러나 L. Robbins, A.J. Youngson, D.P. O'Brien, J.K. Whitaker의 著書나 論文을 통해서 보면 完結된 경제발전론 내지 경제성장론은 아니지만 Marshall의 저서와 글에는 경제발전 내지 경제성장에 관한 그의 見解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중 Whitaker는 Marshall의 견해를 數學模型으로 提示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 점에서 그는 다른 세 사람과 立場을 달리한다.

以下에서는 경제발전 내지 경제성장에 관한 Marshall의 견해에 대한 이들의 解釋을 차례로 다루고자 한다.

II. Robbins의 解釋

Robbins는 Marshall의 焦點은 成長에 있었다⁽²⁾고 말하고 성장과 관련해서 그의 知識論에 특별히 注目하고 있다. 즉 Robbins는 다음의 Marshall의 말을 들어 “知識이 얼마나 經濟發

* 이 研究는 1985年度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의 지원하에 이루어졌음.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敎授

(1) 이 主張의 代表者는 R.F. Harrod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48年の 著書에서 分明히 Marshall에는 成長理論(그의 動學理論)의 足跡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R.F. Harrod, *Towards a Dynamic Economics*, p.15 및 同 脚註).

(2) L. Robbins, *The Theory of Economic Thought*, 1968, p.17.

展의 諸過程에 重要한 것인가에 대해서 더 以上 새로이 強調할 필요가 없다”(3)고 까지 斷言하고 있다.

……知的 能力은 肉體的 技巧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진 사람이 죽으면 消滅되지만 工業機械라든가 科學의 研究法(organon)에 어떤 世代가 加한 改良은 다음 世代로 繼承된다. 판테온의 일을 한 彫刻家 보다 有能한 사람은 지금은 없으며 아리스토텔레스 보다 機知가 뛰어난 思想家도 지금은 없다. 그러나 思想의 裝備는 物的 生産의 그것처럼 累積的으로 發達해간다.(4)

技能과 科學의 그것이든 實際的 裝備에 具體化된 그것이든 아이디어는 각 世代가 前代로 부터 繼承한 선물중에서도 가장 ‘實質的인 것’이다. 世界의 物的 富는 비록 破壞되어도 그것을 낳은 아이디어가 保存되어 있으면 急速하게 再建될 것이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喪失되면 物的 富는 留保되어도 그것은 消滅하기 始作하며 世界는 貧困한 狀態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單純한 事實에 대한 知識의 대부분은 비록 喪失되어도 思想의 建設의 인 아이디어가 남아 있으면 急速하게 回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아이디어가 消滅해 버리면 世界는 다시 暗黑時代로 逆行할 것이다.(5)

사실 다음에서 Marshall이 知識을 ‘가장 強力한’ 生産의 機關(engine)으로, 그리고 第4의 生産要素로서의 組織(6)을 이 知識의 作用을 強化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資本 속에는 知識이라든가 組織의 大部分이 包含된다. 그리고 이들 知識이라든가 組織 中 一部는 個人的 所有로 되어 있지만 다른 것은 公有로 되어 있다. 知識은 가장 強力한 生産의 機關이다. 그것은 自然을 利用하여 이것을 欲望의 充足에 有用하게 한다. 組織은 知識의 作用을 強化하지만 그 중에는 個別企業의 組織, 同一業種에 있어서의 각종 企業間의 組織, 각종 業種間의 組織, 모든 사람들에게 保障을 附與함과 함께 一部 사람들에게 援助를 附與하려고 하는 政府의 組織 등 여러가지 形態가 包含된다.(7)

III. Youngson, O'Brien의 解釋

1. Youngson의 解釋

Youngson은 1887年の 金銀委員會에서 行한 證言에서 *Money Credit and Commerce*(1923)까지의 36년에 이르는 Marshall의 여러 著書와 글을 통해서 볼 때 “Marshall은 決코 經濟

(3) *ibid.*, p.94.

(4) A.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9th edition, p.779.

(5) *ibid.*, p.780.

(6) Marshall의 *Principles of Economics*의 第4編 題目에서 알 수 있듯이 土地, 勞動, 資本 외에 組織을 生産要素로서 들고 있다.

(7) A.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9th edition, pp.138-9.

成長論을 提示하고 있지 않으며,⁽⁸⁾ 또 ‘Marshall 體系’ 같은 것은 없고” “Marshall이 行한 바는 經濟發展을 惹起 내지 促進시키는데 있어서 그가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한 어떤 힘(forces)의 性質과 作用을 略述하는 것이었다”⁽⁹⁾고 볼 수 있다고 解釋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힘을 一旦 줄여서 經濟成長의 決定要因이라고 하고 그것을 便宜上 長期的·基本的 決定要因(fundamental determinants), 主要 決定要因(major influences), 副次的 決定要因(minor influences)의 세 가지로 分類하고 다음과 같이 각각을 說明하고 있다.⁽¹⁰⁾

A. 基本的 決定要因

- (1) 氣候 및 自然資源
- (2) 知識 自由 및 變化力(power of variation)
- (3) 人間의 性格(國民性)
- (4) 人間의 自由⁽¹¹⁾

B. 主要 決定要因

- (1) 貯蓄意欲과 貯蓄能力

이것은 다음을 前提로 한다.

- 1) 貯蓄을 위한 保障
- 2) 貨幣制度
- 3) 所得分配

- (2) 改善된 輸送 혹은 ‘大量生産’⁽¹²⁾

(3)-1. 各國은 自己 土產品에서 繁榮한다는 Petty의 ‘大法則’의 實現

(3)-2. 한 나라가 大規模生産 開始 前에 갖고 있던 資本主義의 組織形態의 經驗

(3)-3. ‘土地收獲遞減의 法則의 壓力의 暫定的 停止’⁽¹³⁾

C. 副次的 決定要因

- (1) ‘中産階級’의 存在
- (2) 能率的이고 腐敗하지 않은 政府의 存在
- (3) 教育

(8) Whitaker는 이에 대해서 強한 反撥을 보이고 있다(J.C. Wood (ed.), *Alfred Marshall: Critical Assessment*, Vol. III, 1982, p.517).

(9) J.C. Wood (ed.), Youngson의 論文, p.95.

(10) *ibid.*, pp.96-100.

(11) 自然的인 性格의 것인 (1)~(3)과 달리 政治的인 性格의 것이다.

(12) Marshall은 이것을 主要 決定要因 중 가장 重要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한다.

(13) 이것은 단 한번 言及되었다고 한다.

(4) 價格의 役割⁽¹⁴⁾

2. O'Brien의 解釋

O'Brien은 Marshall이 두 가지 다른 그러나 補完的인 方法으로 經濟成長의 分析에 接近했다고 말하면서 數學模型接近을 Whitaker의 論文으로 돌리고 成長에 있어서의 要素供給과 成長을 위한 틀(framework)에 Marshall이 어떤 關心을 보였는가를 다룸으로써 Youngson 식의 接近을 取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O'Brien에 의하면 Marshall은 人口의 成長과 勞動力의 效率에 영향을 주는 人口의 健康과 精力(strength)에 대해서 자주 關心을 보였고 또 이와 관련해서 人的 資本과 教育投資 특히 產業訓練과 科學教育 나아가서 企業教育에 대해서 깊은 關心을 가졌다고 한다.

그리고 資本은 增加하는 分業의 實現을 可能케 하는 基本的인 手段을 提供하기 때문에 資本을 成長에 있어서 決定的인 要素로 보았다고 한다. 資本은 技術進步에 의해서 可能하게 되며 標準化에 의해서 補助되는 內部經濟의 實現을 위해서 必要하며 外部經濟는 成長에 있어서 또한 重要하며 資本蓄積은 純生産의 크기와 洞察力, 保障, 家族愛 및 利率을 包含하는 貯蓄動機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Marshall은 그의 第4의 生産要素인 組織도 資本과 勞働을 結合시키며 分業과 特화된 機械의 利用을 實現시키기 때문에 經濟成長에 대해서 決定的인 役割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O'Brien에 의하면 Marshall의 經濟成長過程의 分析은 制度的 틀에 관한 論議와 結付되어 있으며 財産 및 財産權의 保障, 氣候, 自然資源, 人間의 性格(國民性) 및 人間의 自由를 強調하는 데 있어서 古典學派 특히 A. Smith에 의해서 強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Marshall은 株式會社의 勃興 및 通信의 發達과 같이 金融機關의 成長 또한 重要的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¹⁵⁾

그리고 Marshall은 窮極의으로는 貧困의 緩和를 위해서 經濟成長을 바랐다고 한다.⁽¹⁶⁾

IV. Whitaker의 解釋

Marshall에는 經濟成長論이 없다는 主張에 強한 反撥을 보이는 Whitaker는 1974년의 論

(14) Marshall은 이에 대해서 別로 重要性을 附與하지 않았다고 한다.

(15) D.P. O'Brien, "A Marshall 1842~1924," in D.P. O'Brien and J.R. Presley, *Pioneers of Modern Economics*, 1981, pp. 52-53.

(16) *ibid.*, p. 55.

文⁽¹⁷⁾과 1975년의 編著⁽¹⁸⁾에서 數學模型을 提示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中 後者에서 提示된 數學模型만을 다루기로 한다. 그런데 Whitaker에 의하면 이것은 J.S. Mill의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848의 第4編을 가장 重要한 想源으로 삼고 있으며 그 第1編에도 크게 依存하고 있다고 한다.

그 模型은 다음과 같다.⁽¹⁹⁾

$$y = F_1(n, e, c, a, f) \quad (1)$$

$$r = F_2(n, e, c, a, f) \quad (2)$$

$$x = F_1 - F_2 - \tau = F_3(n, c, e, a, f) \quad (3)$$

$$w = F_4(n, e, c, a, f) \quad (4)$$

通常的으로는 $\partial F_4 / \partial n \cdot e < 0$

$$x = w'n + ic = wne + ic \quad (5)$$

혹은

$$i = (F_3 - neF_4) / c \equiv F_5(n, e, c, a, f) \quad (5')$$

通常的으로는 $\partial F_4 / \partial c < 0$

$$s = F_6(w', t) = F_6(w, e, t) \quad (6)$$

혹은

$$\frac{ds}{dt} = F'_6(s, w', t) \quad (6')$$

$\partial F'_6 / \partial s < 0$

$$\frac{dn}{dt} = F_7(n, w', s) \quad (7)$$

$\partial F_7 / \partial s < 0$

$$\frac{dc}{dt} = F_8(y, i, c, e, n) \quad (8)$$

$$\frac{de}{dt} = F_9(n, e, c, a, w', t) \quad (9)$$

$$\frac{da}{dt} = F_{10}(t) \quad (10)$$

$$\tau = \text{常數} \quad (11)$$

$$f = \text{常數} \quad (12)$$

(17) J.K. Whitaker, "The Marshallian System in 1881: Distribution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March 1974, pp.1-17; J.C. Wood (ed.), *op. cit.*, pp.508-526.

(18) J.K. Whitaker, *The Early Economic Writings of Alfred Marshall, 1967~1890*, Vol. 2, 1975, pp.305-309; pp.309-316.

(19) 別途表示가 없는 한, 식의 모든 偏導函數는 플러스이다.

但

t : 時間	n : 勞動者數
e : 勞動의 能率	$n \cdot e$: 能率單位 表示의 勞動力
c : 資本	s : 安樂基準 ⁽²⁰⁾
a : 生産技術	f : 土地의 肥沃度(常數)
w : 成果拂 賃金率(혹은 固定能率의 勞動을 위한 勞動者當 賃金率)	
$w' = ew$: 時間賃金(혹은 勞動者當 稼得額)	
i : 利率	y : 實質純年間所得(혹은 純國民所得)
r : 地代	τ : 租稅(常數)
	$x : y - r - \tau = \text{稼得} \cdot \text{利率基金}$

式(1)은 總生産函數이다.

式(2)는 地代分配分函數이다.

式(3)은 稼得 · 利率基金函數이다.

式(4)는 成果拂賃金決定式이다.

式(5)는 利率決定式이며 式(5')는 그것의 代替式이다.

式(6)은 安樂基準水準函數이며 式(6')는 그것의 代替式이다.

式(7)은 人口成長函數이다.

式(8)은 資本蓄積函數이다.

式(9)는 勞動能率成長函數이다.

式(10)은 生産技術變化函數이다.

以上の 10개식은 $n, e, c, s, y, r, x, w, i, a$ 의 時間經路를 附與하는 動學體系를 나타낸다.⁽²¹⁾
 식(11)과 식(12)는 이 體系를 完結짓기 위한 것이다.⁽²²⁾

(20) Whitaker는 이것을 勞動者의 慣例的 生存水準이라고 하고 있기도 하다(*ibid.*, p.307). Marshall은 이 安樂基準(standard of comfort)의 上昇을 “아마 低級의 欲望이 優勢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人爲的인 欲望의 單純한 上昇이라고 하는 程度의 意味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Principles of Economics*, 9th edition, 1961, p.690). 이 安樂基準의 對概念이 다름 아닌 生活基準(standard of life)이다(*ibid.*, p.689). 이 概念은 Marshall에 있어서는 決定的으로 重要한 意味를 갖는 것이다.

(21) Whitaker에 의하면 式(1)~式(5) 혹은 式(5')는 n, c, e, a, s 및 τ 의 數值가 주어졌을 때 어떤 一定時點에서의 y, x, r, w, i 의 數值를 決定해 주는 것, 즉 「一時的 均衡」值를 附與하는 것이라고 한다(*ibid.*, p.308).

(22) Whitaker는 이외에 *Principles of Economics*의 經濟成長論에 該當하는 部分을 數學模型으로 提示하고 있으며(*ibid.*, pp.309-312) 또 2개의 附錄을 添加하고 있다(*ibid.*, pp.312-316).

V. 結 言

Whitaker처럼 數學模型으로 表現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일단 *Principles of Economics*로 限定시켜서 그것의 第4編 生産諸要素와 第6編, 第13章 生活基準과의 關聯에 있어서의 進歩를 볼 때 Marshall의 經濟發展論 내지 經濟成長論의 輪廓은 어느 程度 把握될 수 있으리 라고 생각된다. 사실은 Robbins, Youngson, O'Brien 등의 解釋도 *Principles of Economics*의 이 部分에 주로 焦點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서 특히 注目을 받을 만한 것은 Robbins의 解釋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Ⅱ節에서 본 것 처럼 Marshall이 知識을 ‘가장 強力한’ 生産의 機關으로 보고 있는 데에 着眼하여 이 點을 특별히 浮刻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R. Nurkse도 앞의 Ⅱ節에서 든 Marshall의 *Principles of Economics*, p. 780을 引用하고 그의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1953의 끝章인 第7章을 끝맺고 있다. 興味있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